

설계경기 | Competition

중구청 보훈회관

Junggu Bohun Assembly Hall

당선작 / 유병헌 정화원
(주. 다주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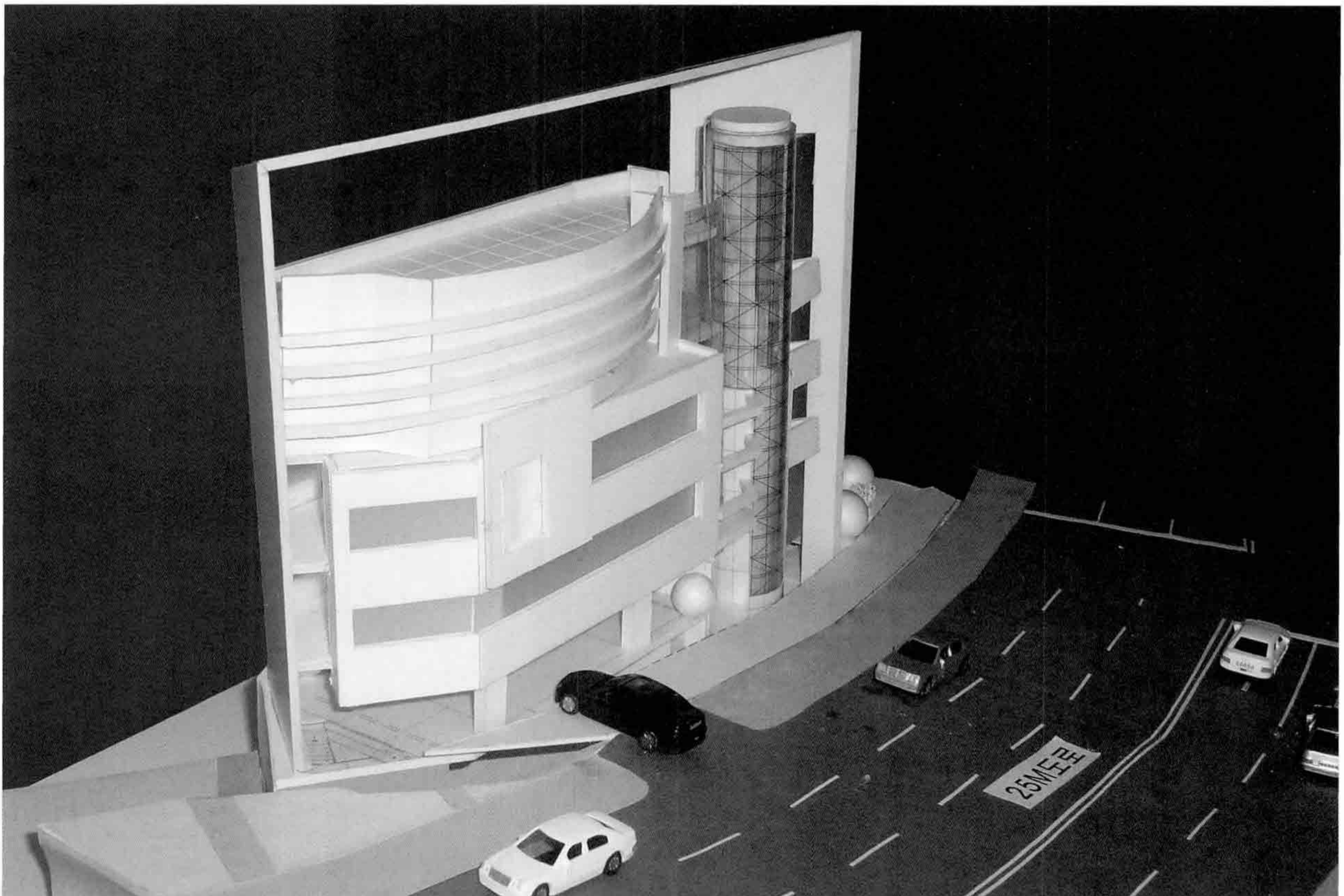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2-12외 9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31.6㎡
건축면적 218.54㎡
연면적 1,238.12㎡
건폐율 50.63%
용적률 157.22%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 최고높이 19m
발주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설계담당 신희철, 구성희, 서우진, 조인기
박진우, 김민상

학이 봉우리에와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무학봉이라고 이름 지어진 무학봉 북쪽에 위치한 부지는 신당역에서 걸어오면 거리상으로는 가까우나 그 경사가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우리나라 여건상 경사지가 아닌 지역이 많지 않지만 이번에 설계한 부지의 급한 경사는 설계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다. 도로 축을 따라 지형의 흐름에 맡기듯 건물을 배치한 후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하부레벨은 보행자의 출입구를 상부레벨에는 차량출입을 두어 자연스럽게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고 보차분리를 하였고 양 끝단에 계획된 코어는 지하층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주었다. 지역 주민의 요구반영 및 지역 특성과 조화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중구청의 바람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설계에 임했다.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건축물의 디자인(미관), 기능, 구조, 안전, 동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 경제성 및 환경과의 조화,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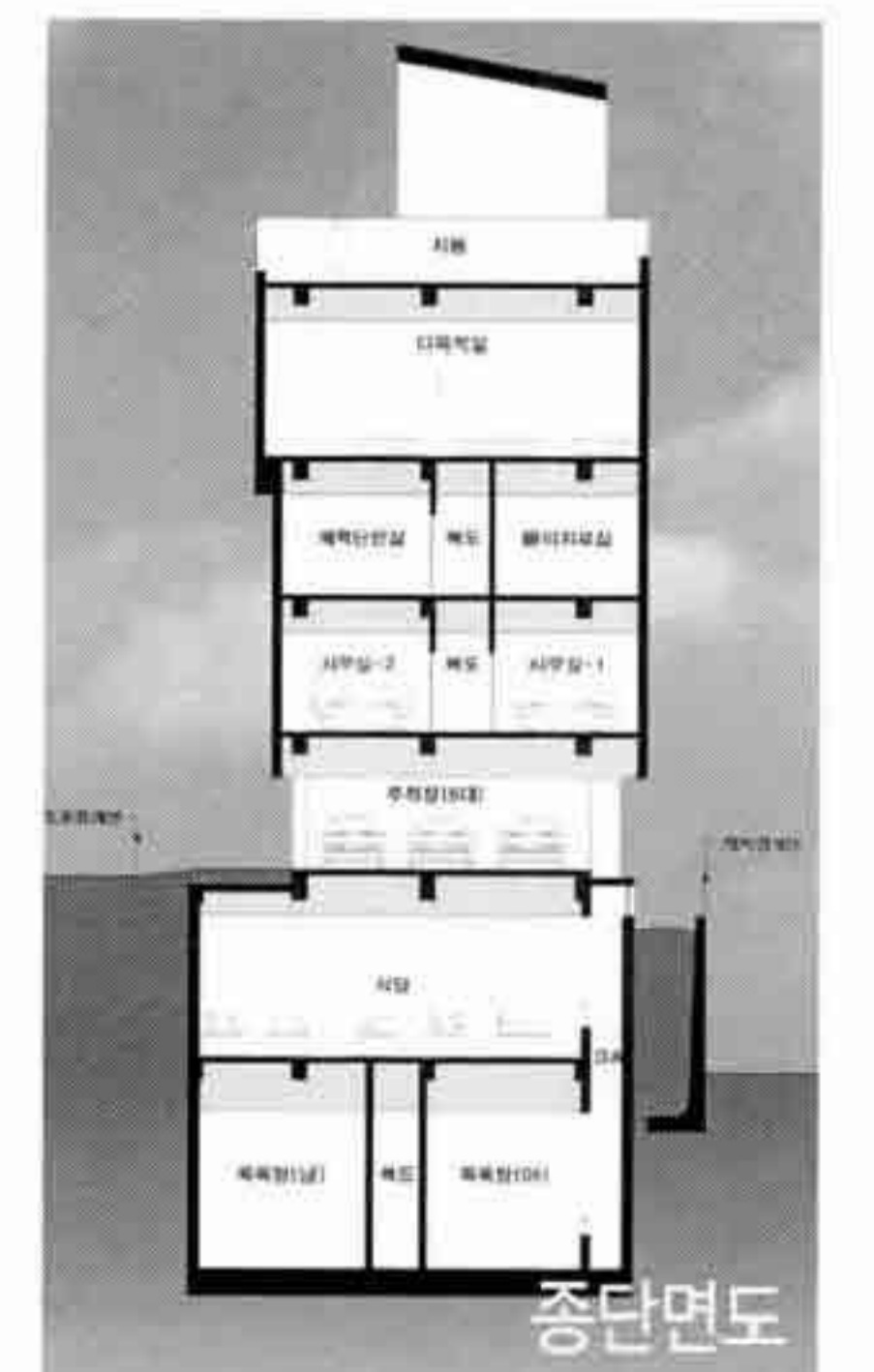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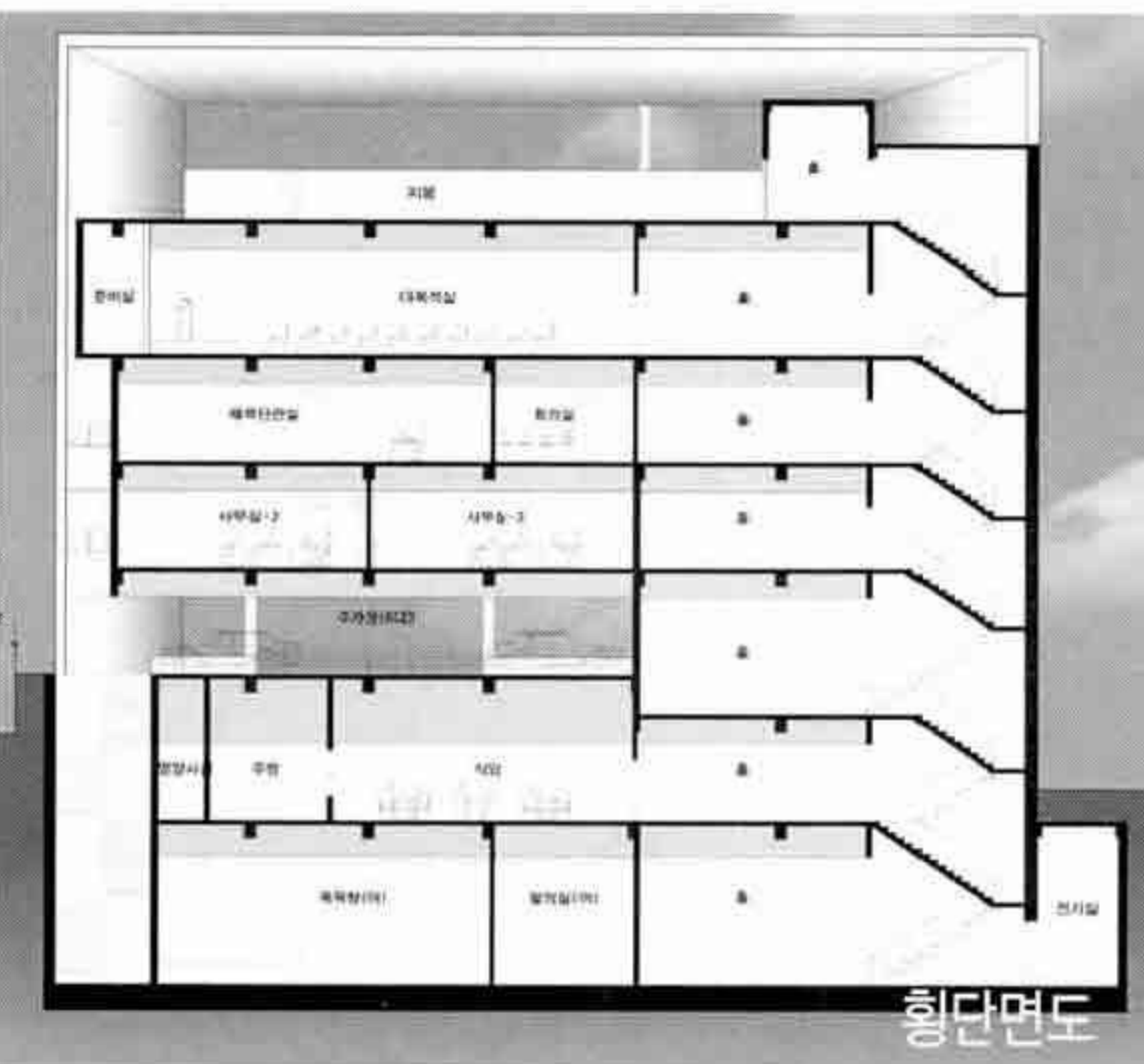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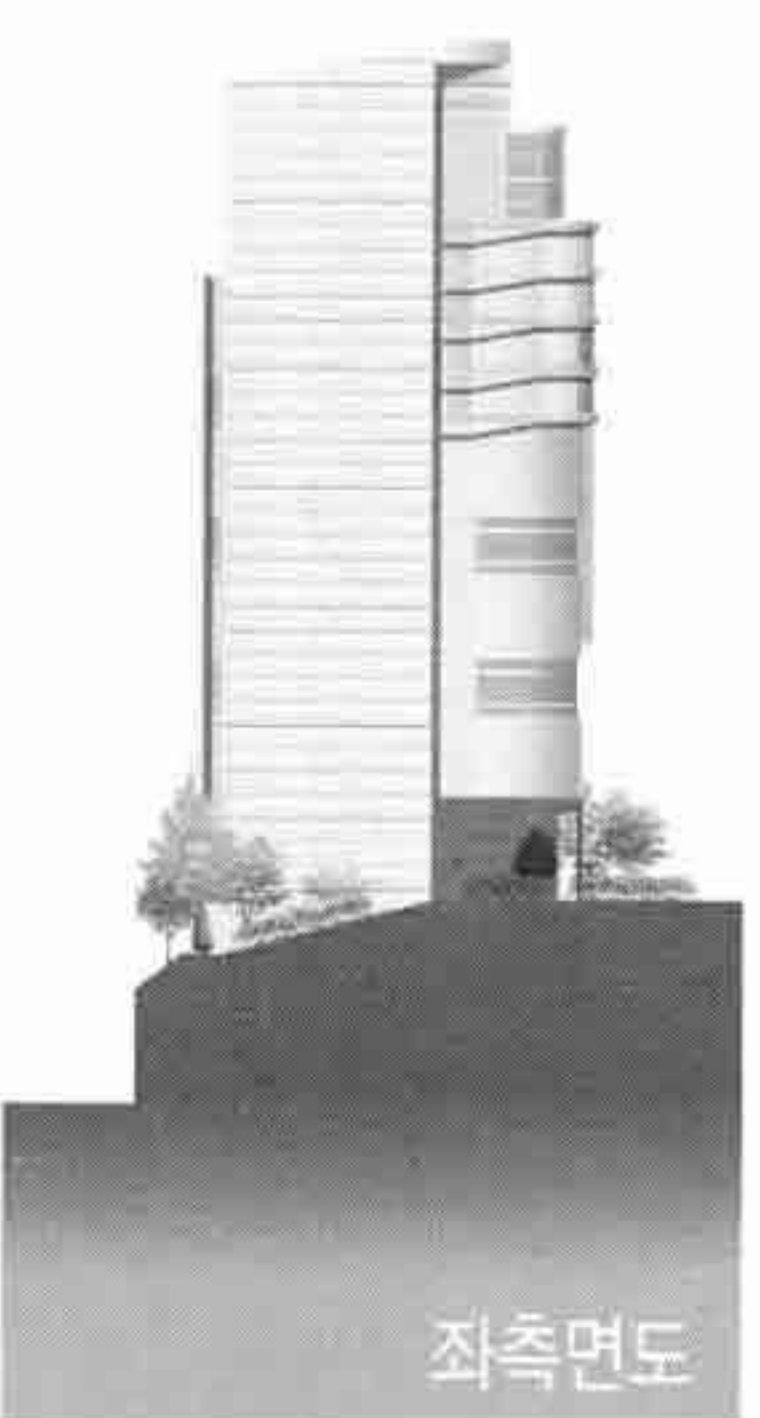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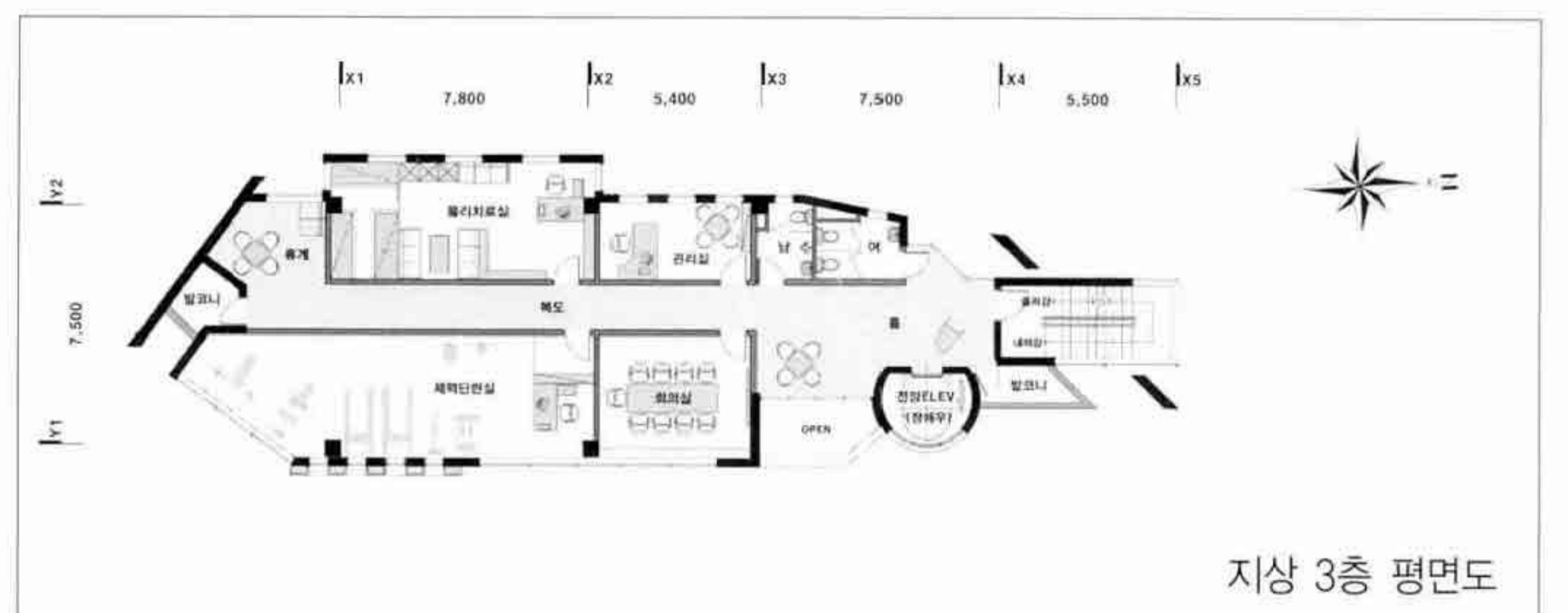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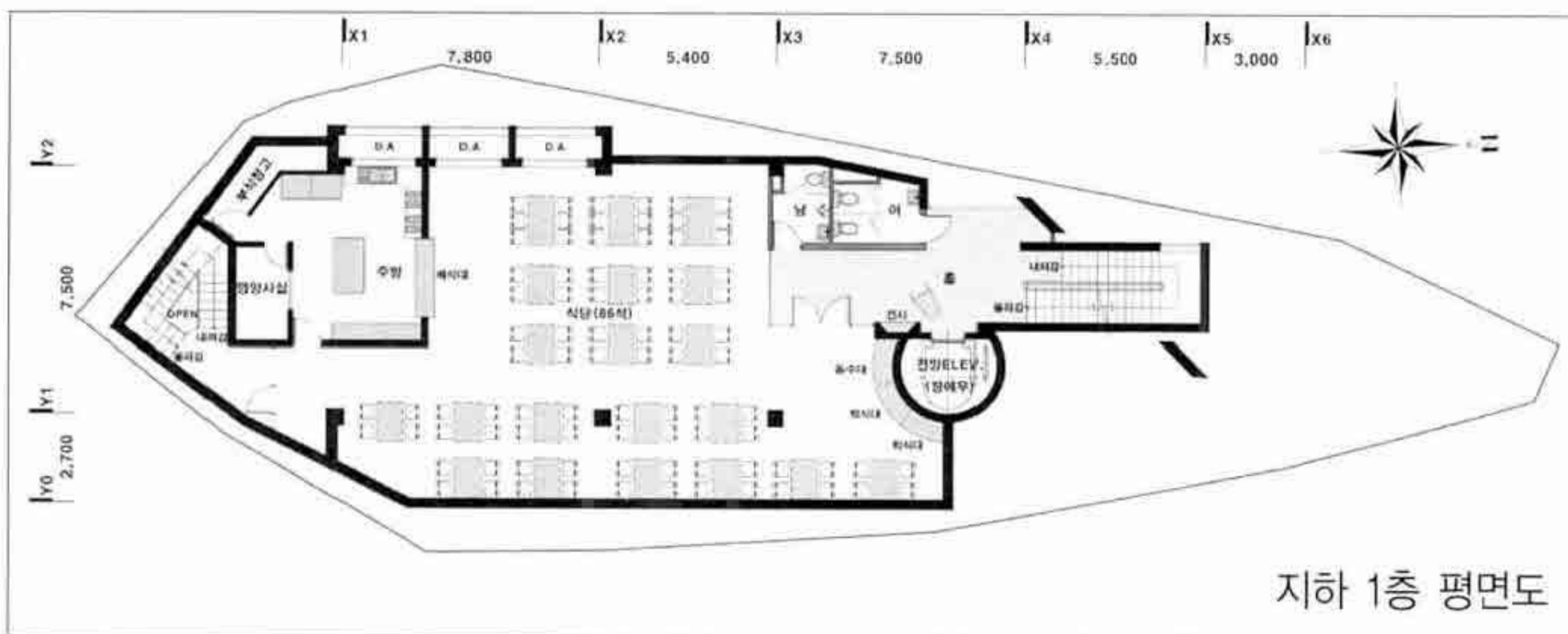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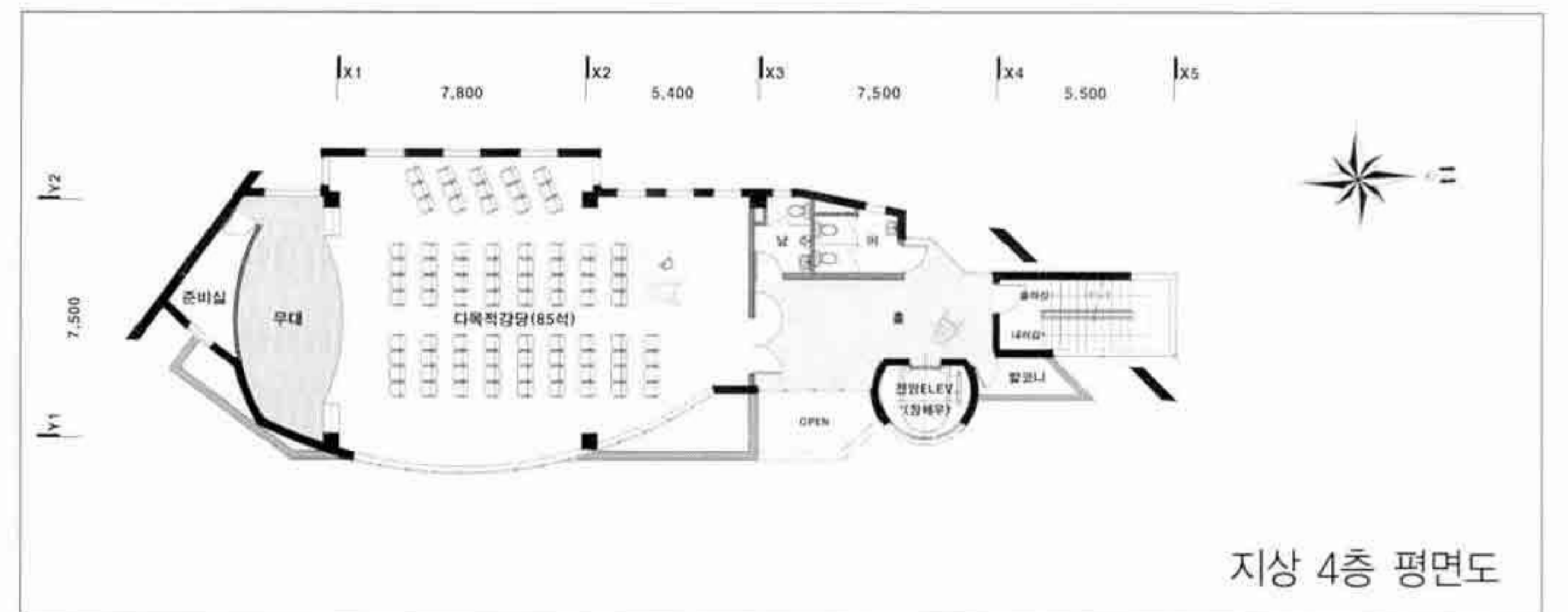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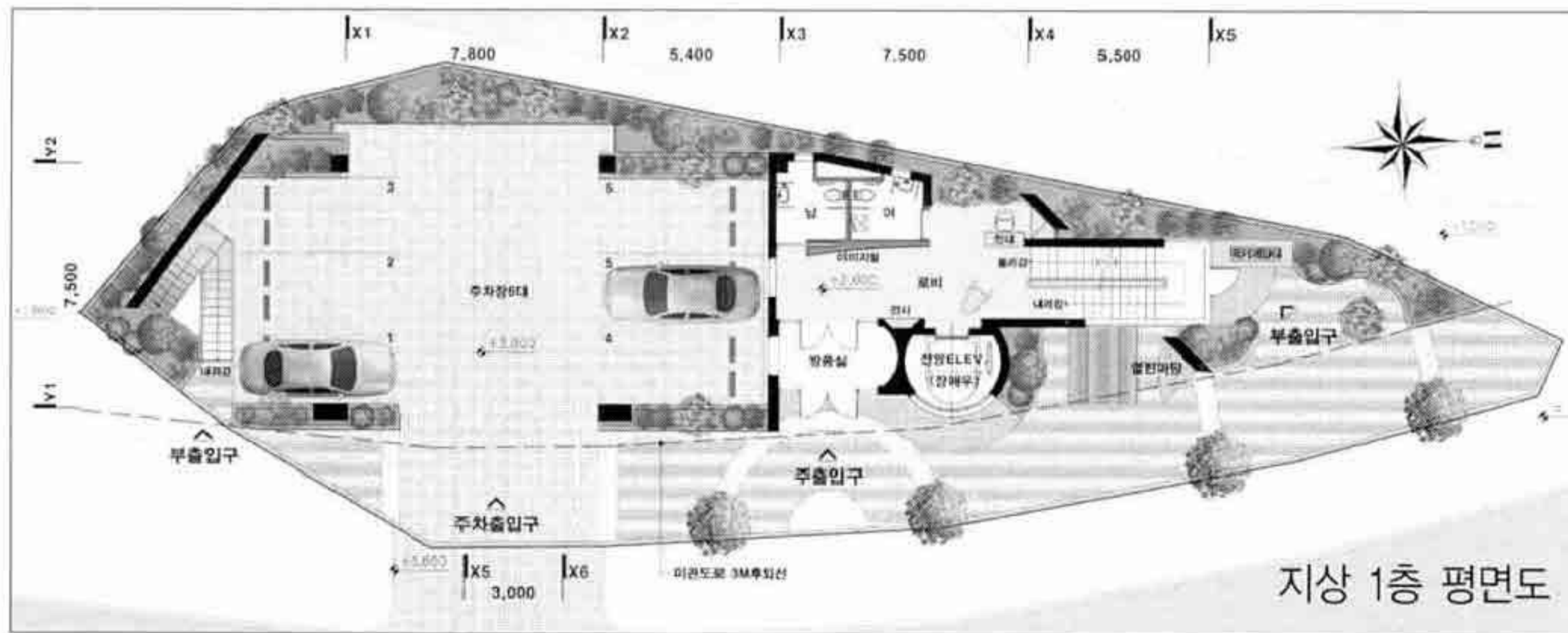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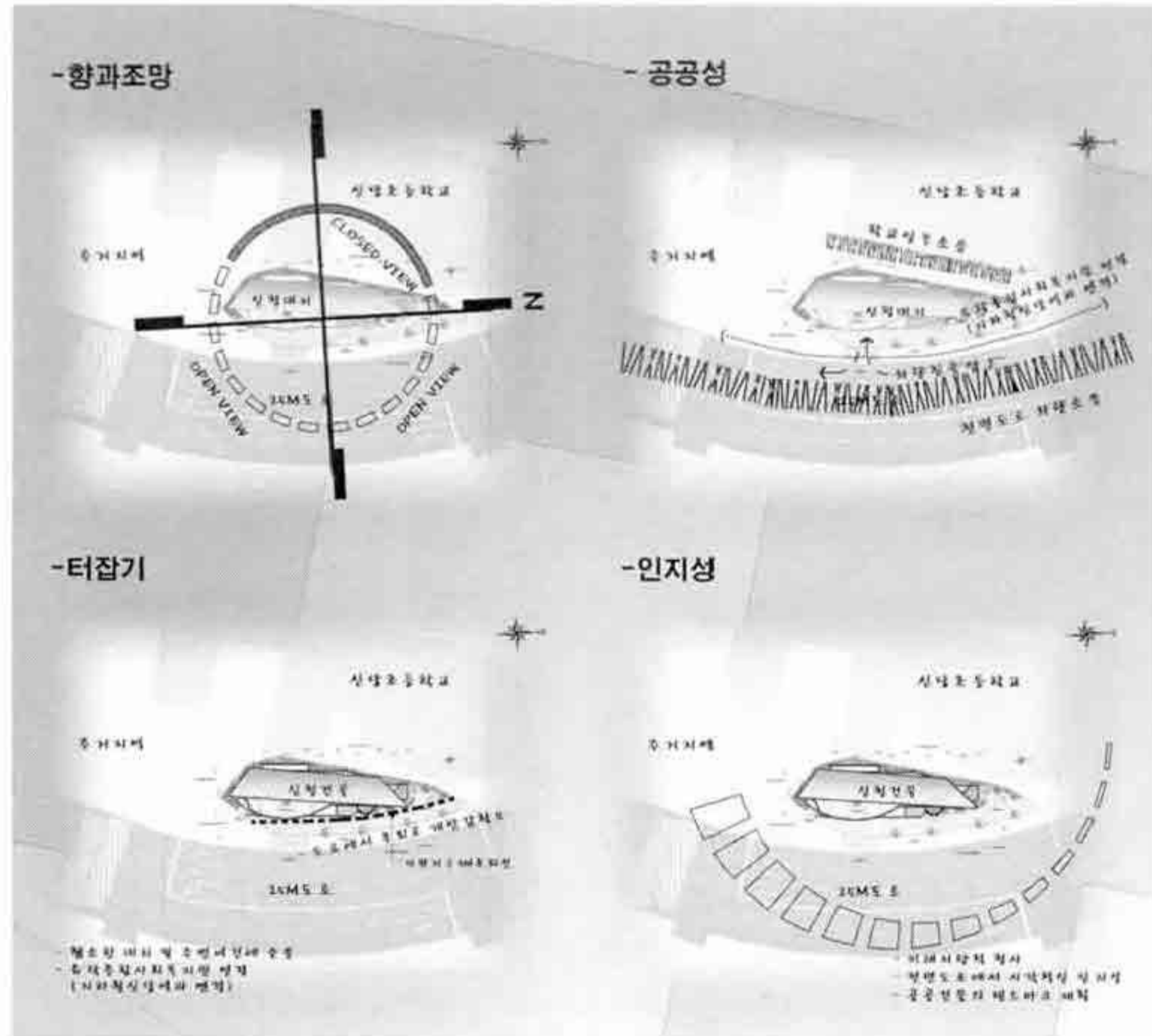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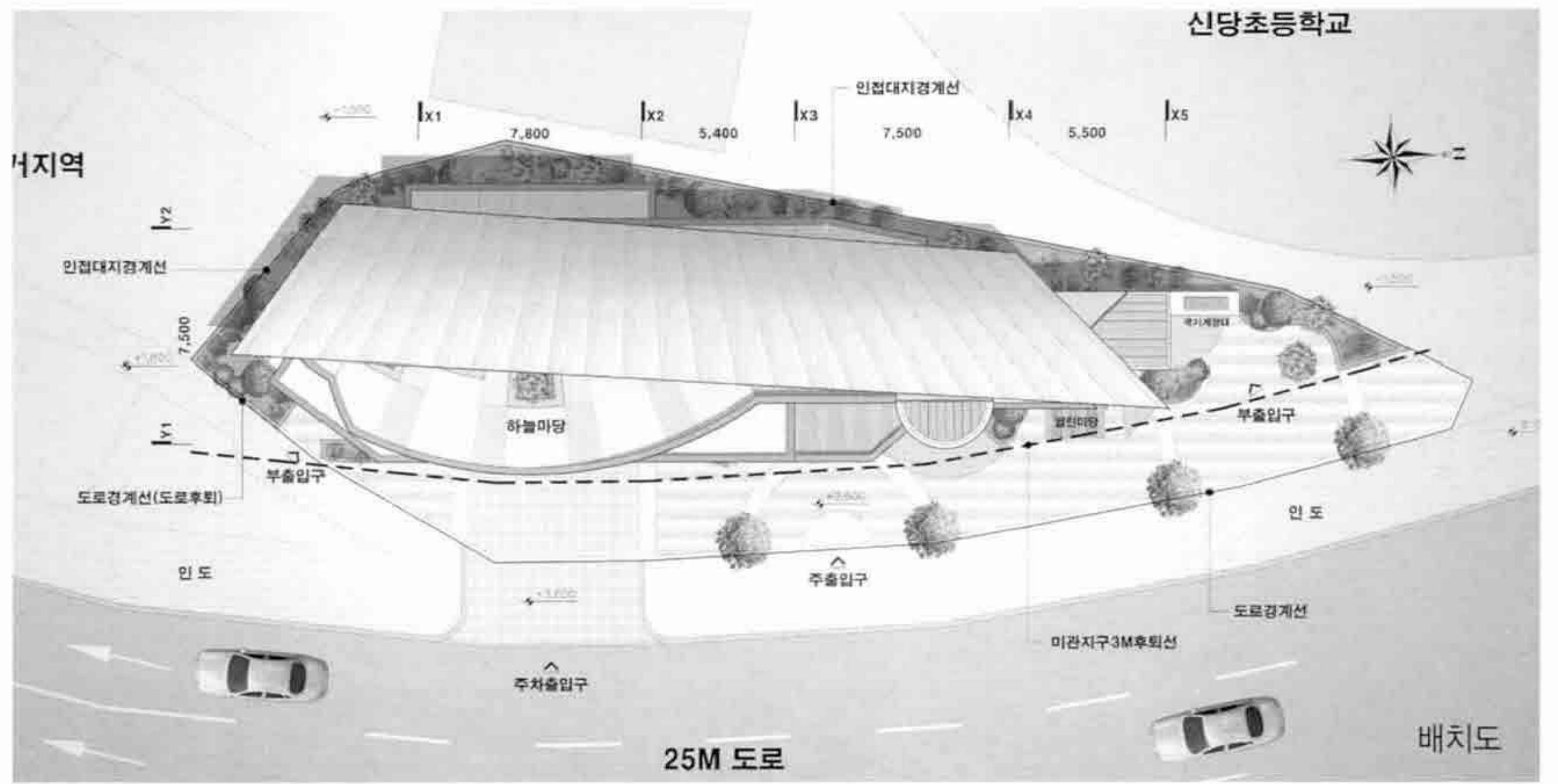
건축학개론의 첫 장에 건축물은 쉼터(shelter)로서의 기능을 다 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개념을 잡고 계획을 시작하였다. 젊은 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 그들을 이제 국가가 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의 밑거름이 된 국가유공자들의 안식처(shelter),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였다.

지역보훈가족의 정보교류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형성함에 있어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미와 기본도형의 조형미가 가미된 평면과 입면 계획을 하면서 그 개념은 쉽게 해결되었다. 지상층 건물을 보훈가족을 상징



하고, C자 모양으로 연결된 지붕과 외벽은 안식처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매스의 비례와 균형을 부여 건물의 안정감 확보해 나가면서 계획은 마무리되었다.

극단적인 비정형의 대지 속에서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및 적절한 모듈계획과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형에 공간적 넓이와 깊이를 최대한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해 지붕과 전면도로와 연계된 주차장은 필로티로 계획하였다. 圖



중구청 보훈회관

Junggu Bohun Assembly Hall

가 작 / 한형우
(스페이스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162-12외 9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비관지구
주 용 도 노유자시설 중 기타시설 (보훈회관)
대지면적 431.60m²
건축면적 246.71m²
연 면 적 1,259.88m² (지상: 753.23m², 지하: 506.65m²)
건 폐 율 57.16% (법정: 60%이하)
용 적 률 174.52% (법정: 200%이하)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임윤택

기본계획방향

■ 비움 void

높은 밀도로 인하여 여유가 없는 대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의 체험을 유도하고 공공성에 그 목적을 두는 소통의 행위를 유발하기 위하여 보이드(void)를 계획한다. 보이드는 내부 - 내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보이드와 내부 - 외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보이드로 각각 기능하게 된다.

■ 공간의 흐름

내·외부의 비워진 공간은 다양한 층의 다양한 위치에 계획 되어졌다. 이러한 각각의 비워진 공간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평·단면상의 흐름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공간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

■ 형태와 재료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는 주변의 학교, 도로 교통공단 등과 함께 공공성이 강조되는 역할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려하였고, 주변 상황과의 관계 맺기를 위한 시도이다. 대지상황에 의해 도출된 기본 형태를 변형한 후, 그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하드우드(IPE)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하드우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변해가는 재료로 시설 이용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공공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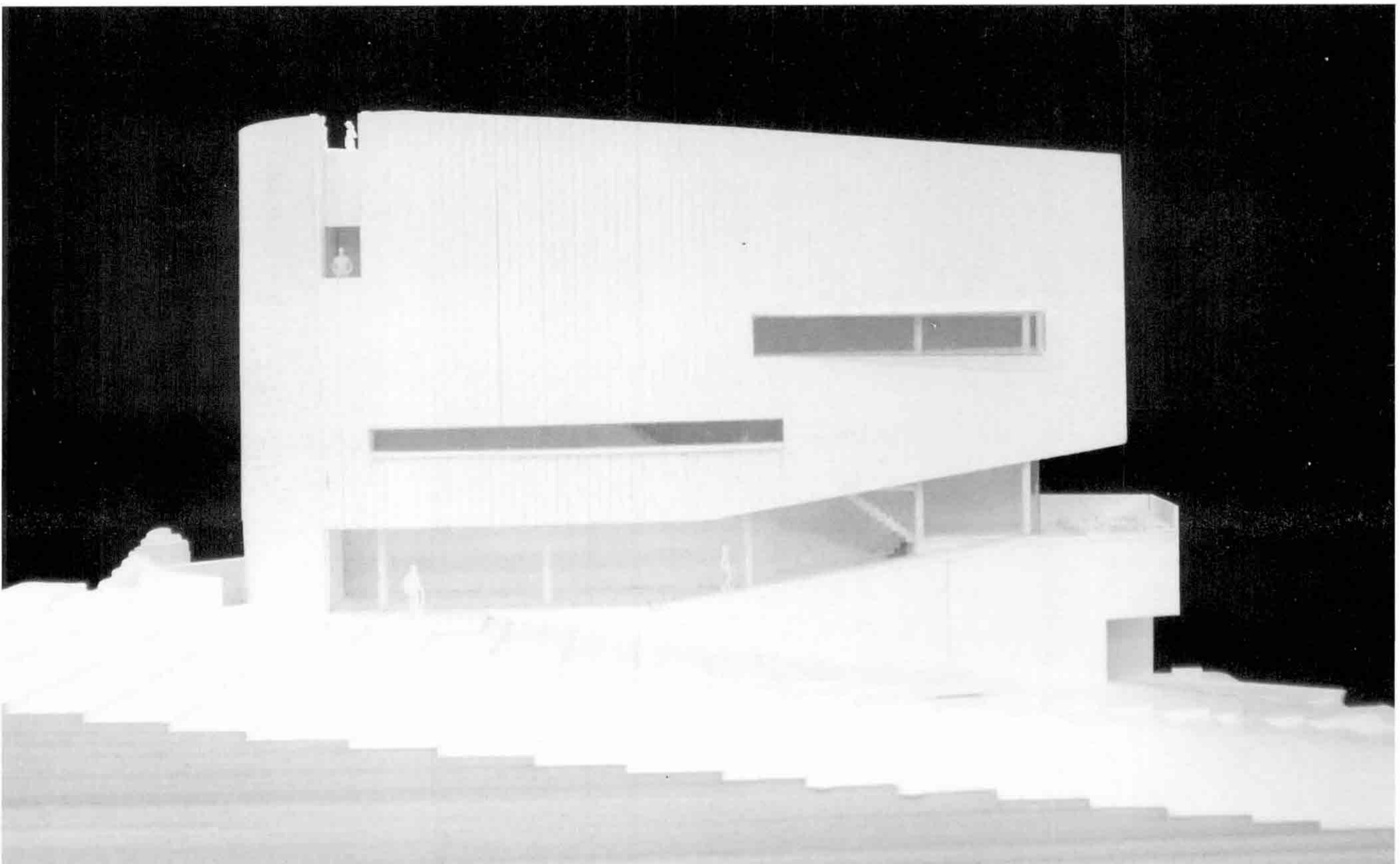
배치계획

■ 주변과의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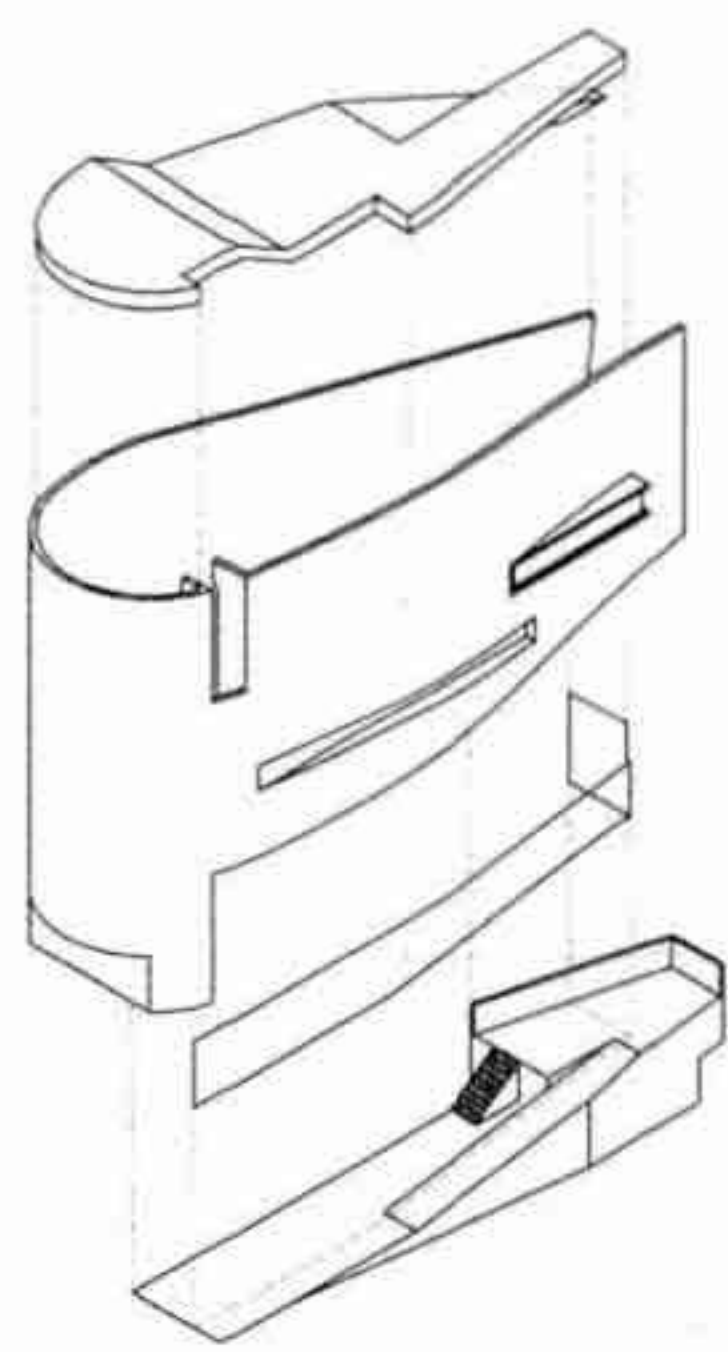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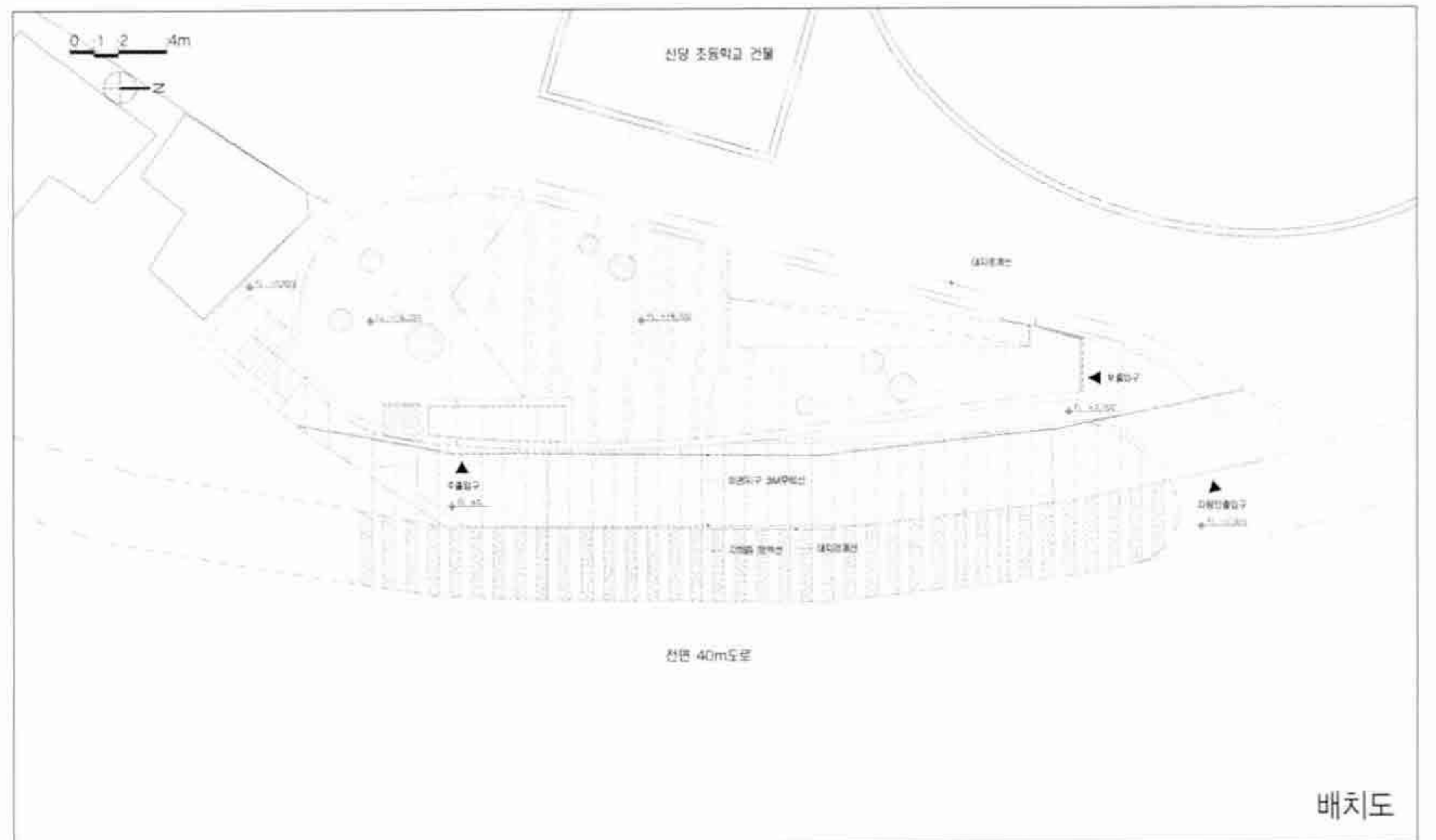
주변은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완공된 주거지로서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고밀화된 공동주거의 형식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최근 확장된 40m 전면도로, 주변의 거대한 스케일(Scale)의 공공 공간(학교, 도로관리 공단 등)을 고려하면 대지의 규모가 공공성을 표방하기에는 규모 면에서 부족하고, 대지의 형태도 이 지역이 앞으로 변모될 모습을 담아내기에 부적절한 모습이다. 추후 변모될 이 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공공성에 대한 해석으로 단순한 형태의 조형과 함께 주변의 지형을 반영하는 배치계획을 하였다.

■ 도로와 건축물과의 관계

계획 부지의 남북 방향으로 확장된 도로와의



Level 차이는 최대 3,500이다. 계획안에서는 새로 조성된 도로 Level을 대지 내로 연장하여 다양한 Level에서의 진입을 강조하였다. 차량 진입은 -2,900 level, 1층 진입은 +0 level이고 2층 Deck로의 진입은 +2,000 level에서 이루어져 주변과 다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



육상복합, 세팅bedum



아드 우드(PE)



투명복합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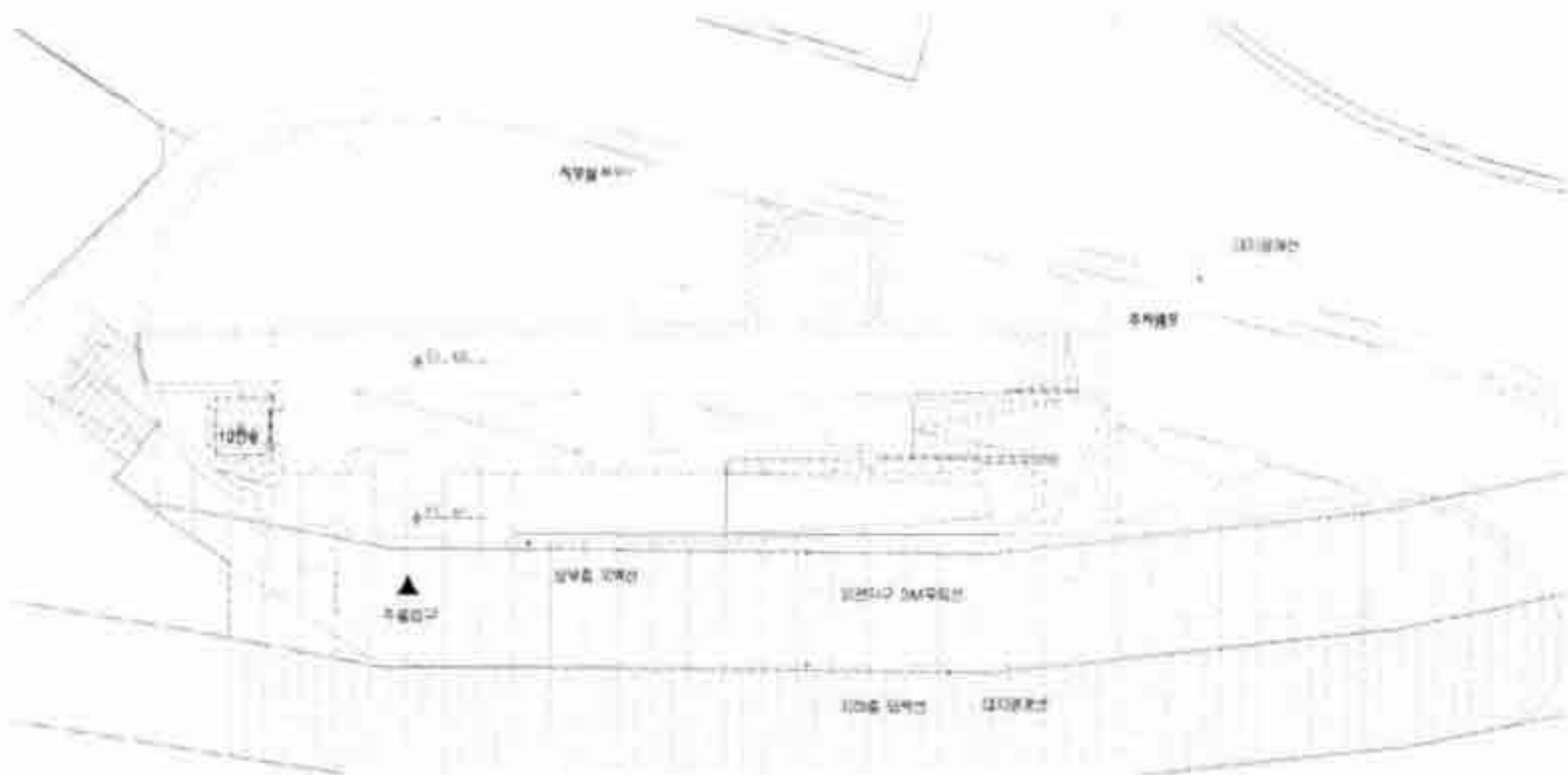
송탄 노출콘크리트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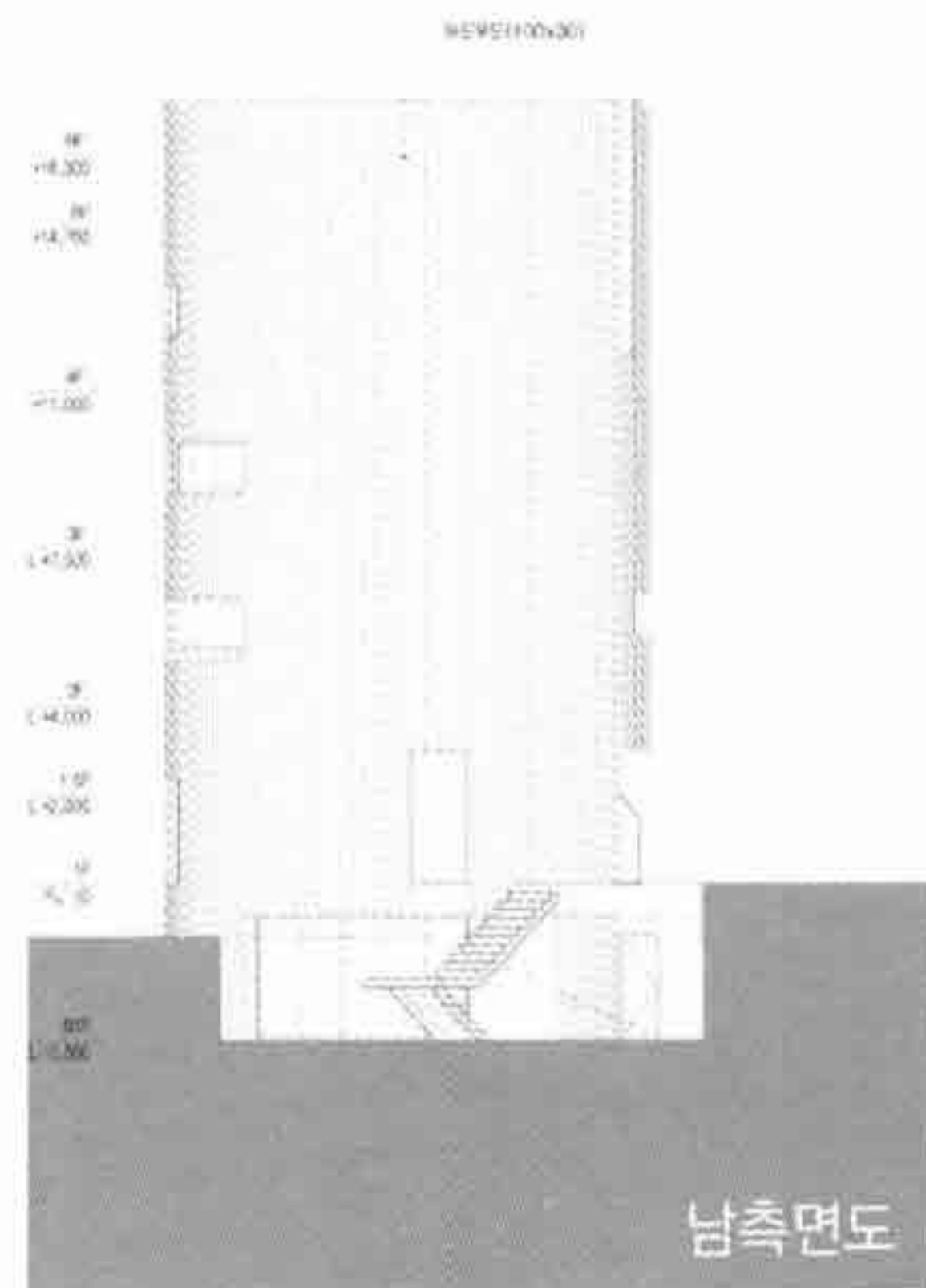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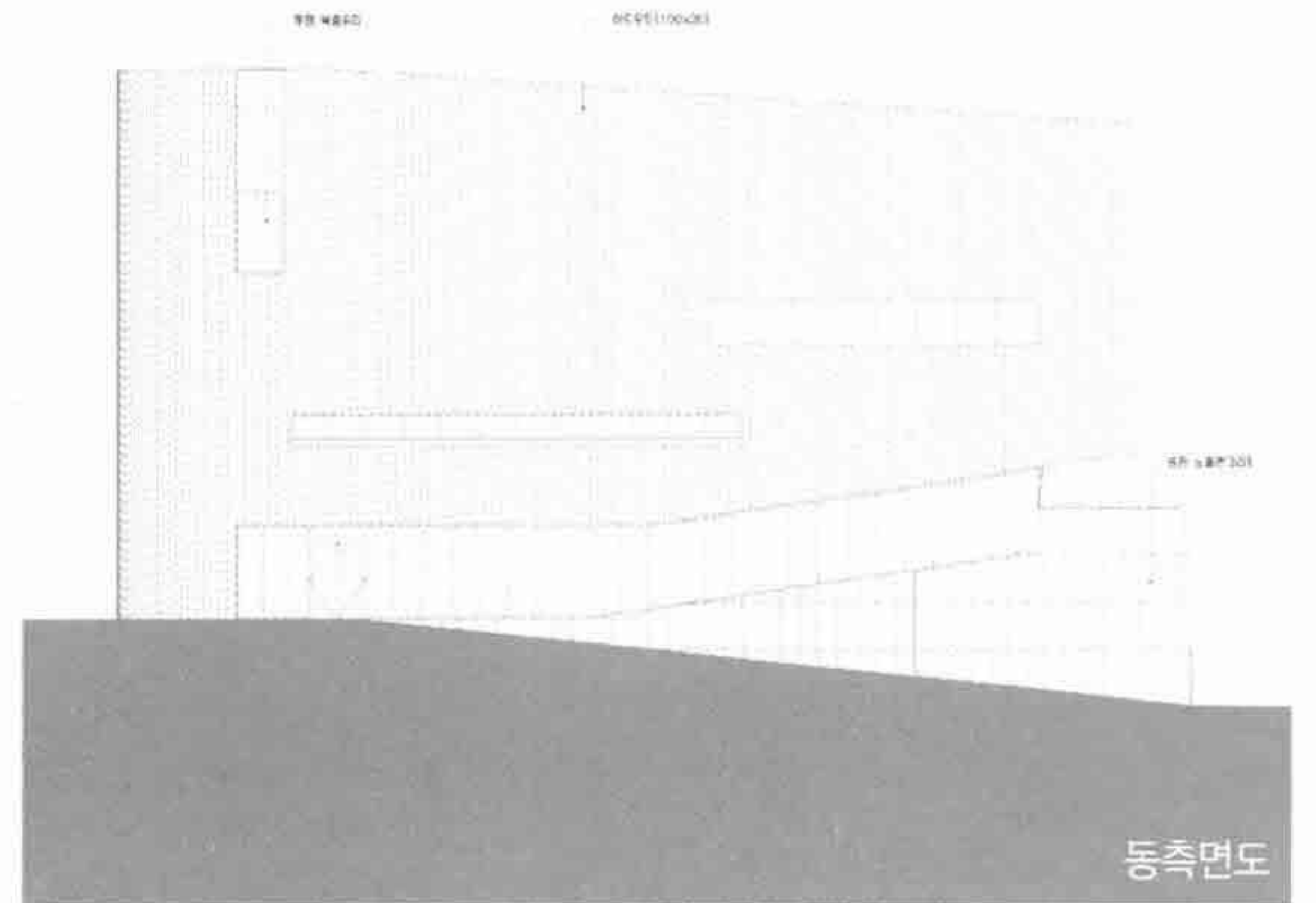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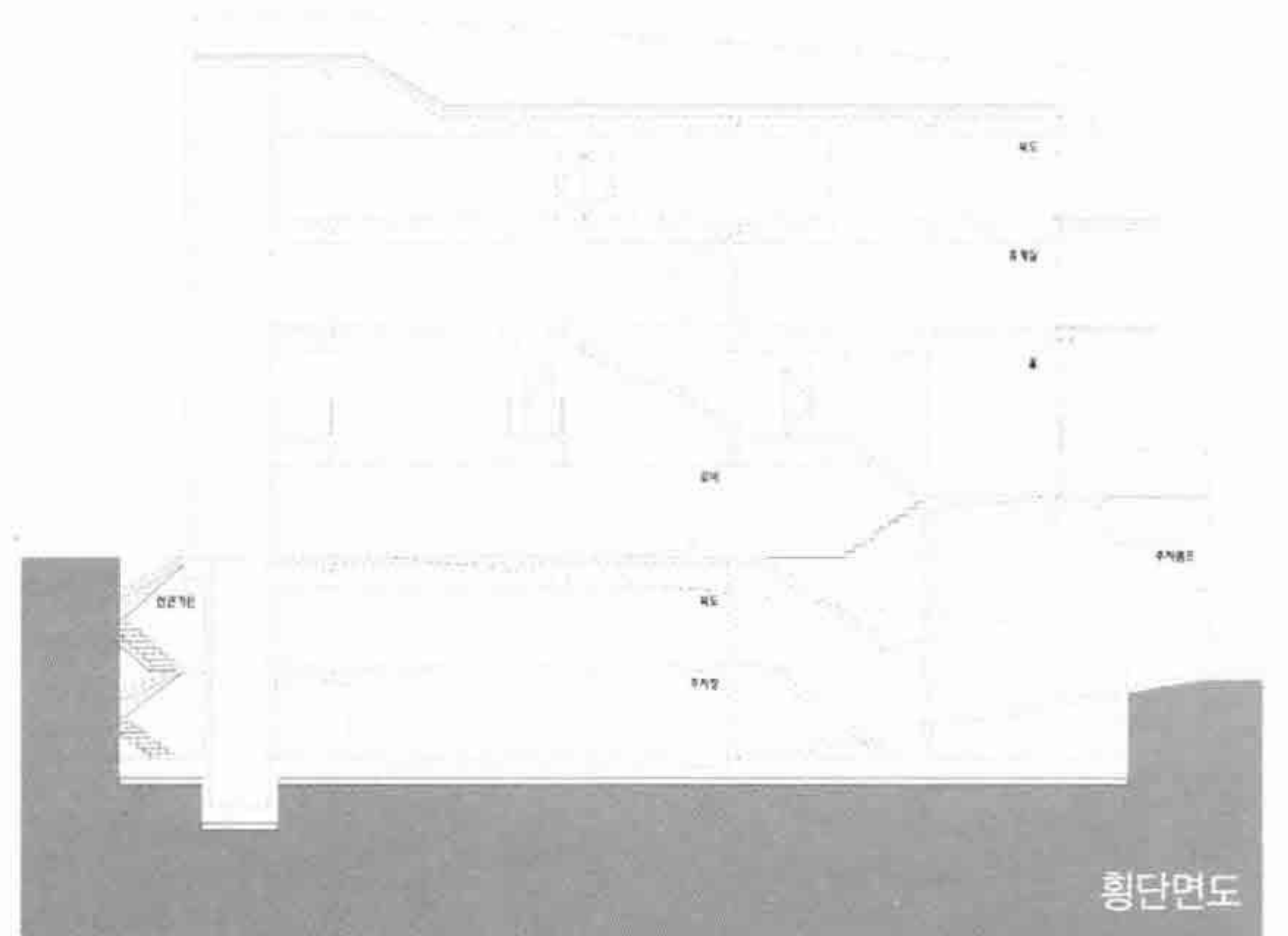
남측면도



동측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